

“광주서 헬기사격해 엄청난 분노 일어나” 80년 5월 21일 미국 국무성 문서 나왔다

광주일보 발굴...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정부에 보낸 비밀 전문
23일자에는 “광주서 항공기들이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미국 정부의 문서(사진)가 발견됐다. 그동안 시민들의 증언과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기총소사 탄흔 발견, 국방부 특조위 조사로 헬기 사격이 사실로 드러났으나, 이를 확인하는 미국측 문서는 처음이다. 또다른 문서에서는 5월 21일부터 최소 22일까지 공중에서 총격이 진행됐다는 정황도 담겨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21일 발굴한 미국 국무성 전문(80년 5월 21일자)에는 “군중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총이 발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Crowds were to disperse or be fired on by Helicopters. But there was great indignation when firing actually took place)고 적혀있다.

이 문서는 당시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전송한 것으로, 5월 21일 광주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다. 전송 시간은 1980년 6월 10일 오전 9시 43분이다. 문서에는 당시 광주에 머물고 있던 미대사관 정보원이 취합한 정보가 담겼다. 시점을 과거형으로 사용한 점으로 미뤄 항쟁이 끝난 이후인 6월 10일 종합적인 상황을 정리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원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군중들을 향해 헬기공격이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 다만, 해당 문서에는 헬기 사격이 자행된 정확한 시각과 장소는 기재돼 있지 않다. 전문의 작성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미대사관의 정보원은 금남로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 발생했는데 광주기독병원에는 오후 4시까지 10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가 도착했음”이라고 적



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전문기는 “전문내용을 종합해보면 5월 21일 오후 3시 이전 광주기독병원에서 결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이 정보원은 헬기 사격을 목격한 것 같다”며 “실제 고(故) 조비오 신부 등이 증언한 5월 21일 금남로 헬기 사격 목격담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정부의 또 다른 문서에는 금남로 집단발포 당시부터 최소 22일까지 항공기(Aircraft) 사격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다. 육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진압작전이 수행됐다는 것이다.

비밀전문(5월 23일자)에는 “광주의 상황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광주에서 항공기들이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Situation in Kwangju seems to be improving slowly... Air craft overflying kwangju were no longer drawing fire.)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항공기는 전투기·폭격기 보다는 헬기가 유력해 보인다.

보고서 작성자는 “광주에서 본 것은 너무나 억압받는 자유인들의 의사표시였으며 (계엄군의)폭력적인 행태에 대한 반작용”, “자유롭게 태어난 시민들이 더 이상 억압당하기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자연 발화”라고 광주항쟁을 설명했다.

지역 5·18연구자는 “이 문서는 미국정부의 공식 자료인 만큼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며 “미정부의 헬기사격문건은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5월의 진실을 규명하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다빈 혼신의 연기 21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최다빈이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다빈은 67.77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며 8위에 올라 프리스케이팅 진출권을 따냈다. ▶평창 동계올림픽 2·18·19·20면 /연합뉴스

알립니다



4월 6~8일 서울 양재 aT센터 전시장

광주일보는 전라도 정도 천년과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천년의 힐링’을 주제로 ‘힐링 페어 2018(Healing Fair 2018)천년 힐링관’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힐링 건강문화의 선도를 하는 (사)힐링산업협회, 국내 대표적 MICE 기획사인 (주)이즈월드와이드와 함께 전라도 천년관, 힐링 투어, 힐링 푸드, 힐링 뷰티, 지자체 특별관 등의 주제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라도 천년관’은 천년 문화유산과 탁월한 자연경관, 맛갈스런 음식, 친환경 농산물로 대한민국 힐링 문화의 요람인 광주·전남을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와 힐링 관련 상품 생산업체 및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 행사명 : 힐링페어 2018(HEALING FAIR 2018) 천년 힐링관
- 일 자 : 2018년 4월 6일(금)~8일(일) / 총 3일간
- 장 소 : 서울 양재 aT센터 전관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주 최 : 광주일보사, (사)힐링산업협회
- 홍보부스 모집 : 호남권 힐링 관련 상품 및 생산 단체
- 문 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062-220-0555

광주일보

윤장현 시장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추진”

1단계 구간 2023년 개통 의지

윤장현 광주시장이 21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1단계 구간을 당초 목표연도인 2023년에 개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한 번 민선 6기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반대 여론이 일자 윤 시장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여 간의 재검토 과정을 거쳐 2016년 초 추진을 결정할 바 있다. 윤 시장은 2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4년 말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을 약속한 이후 2015년 저상도 건설방식 안전성 검토와 사업비 추가절감을 위해 전문가

와 시민단체로 태스크포스(TF·특별기구)를 구성,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2016년 초 ‘노선변경 없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임기 내 착공’이란 원칙을 시민과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1년 6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바탕으로 2016년 말 중앙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고, 2017년 1단계 구간 실시계획 설계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2017년 10월에는 도시철도 차량 제작구매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1345억원 중 무려 553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모두의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정시추가모집] 2018. 2. 22(목)~23(금)
[대학원추가모집/신학대학원 편입추가모집]
2018. 2. 19(월)~22(목)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 계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 E R 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